동화 같은‘ 新백조의 성 ’- 노이슈반슈타인 성

- 국왕 루트비히 2세의 비극이 승화된 유럽 유수의 관광 명소로 -

맥주의고장뮌헨에서남쪽으로자동차로두시간거리. 유럽의지붕인알프스의 거대한 산맥 북쪽언저리에있는 퓌센이라는 마을의나지막한 산중턱위에는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애달픈 사연을 간직한성이하나놓여있다. 이름하여노이슈반슈타인, 일명‘ 신(新)백조의성 이라 불리는 성이다.

전세계로부터방문객들의발걸음이끊임없이이어지는아름다운이성은외벽에흰색과 베이지 색의 대리석을 사용하여 날씬하고우아한자태를지니고있다. 게다가중세의 중후한 멋을 풍기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지않고밝은색조를띠며, 지붕위에는비대칭적인 여러 개의 푸른 원추들이 예술성을 더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풍의 바탕에다 아랍의 특이한 문양을 가미한 듯한 그야말로 동화속에서나꿈꿀수있을법한신비한모습의 성이 멀찌감치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방문객의마음은설레기시작한다.

왕이 직접 설계한 新백조의 성

이 성을 지은 사람은 루트비히 2세. 그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왕으로서 1845년 8월 25일에 아버지 막시밀리안 2세와 어머니마리의사이에서장남으로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유별나게 예민하고, 성장하면서부터는시와 음악, 그리고미술과 같은 예술 분야에 심취하기일쑤였다. 특히, 일찍이건축을공부하기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성을 자신이 직접설계하게된계기가된다.

1861년 2월 2일, 그가 16세 되던해 바그너의오페라‘ 로엔그린 을관람한뒤부터 바그너의 열성적인 팬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의 나머지 인생과 바그너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1864년 타계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약관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과

19세기 후반 '동화 속의왕'이라 불리며 평생을 독신으로외롭게살다간독일바이에른국왕루트비히2세.

거와 같은 절대 군주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자유화와 자본주의 시대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새로운시대가도래하기시작하여상황이예전같지않게되었다. 더군다나 체질적으로 정치에는 소질이 없었고 음악과 시, 그리고 미술 같은 예술 세계 속으로빠져들기좋아하는심약하고감성적인성격의소유자였으므로궁전이있는 뮌헨을 가급적 피하려 들었다. 그래서 궁전을 떠나 남부 지방의 알프스부근의전원에 있을 때오히려 더욱 행복감을느끼게되었다.

그는 살아생전세 곳에성을지었지만 완성한곳은신백조의성하나뿐이다. 그러나, 이성역시1869년부터짓기시작하여 17년 동안 지었음에도 3분의 2밖에는 완성하지 못했다. 루트비히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재산을 모두 털어 지었으며 때로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지었기 때문이었다. 루트비히가 죽을 무렵에는 축성에 따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무려1,400만마르크에이르게되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루트비히 2세가 이 성에 살았던 기간은 겨우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다. 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루트비히 2세의 비극과 역설

노이슈반슈타인의원래스케치는1868년에 뮌헨 궁정 극장의 무대 디자이너인 크리스티안 양크가 그렸다. 이 스케치는 에두아르트 리델이 건축에 알맞은 그림으로 다시 그렸고, 이듬해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터자체에중대한문제가있었다. 기존의 도로보다 200m 가량이나 높은 데다 물도 없는토질이었던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샘을 하나 발견하여 성까지 연결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있다. 리델은1872년까지책임을맡았고, 그 뒤에는 건축가 두 명이 투입되었는데, 1886년에왕이죽음으로써공사가중단되었다. 그무렵골조는거의세워졌고왕의처소도 장식이 마무리되었으나 다른 실내 작업은미완성인상태였다.

지배적인양식은13세기의독일로마네스크식이지만 해석은 자유로웠다. 실제 건물에서 따온 요소들도 있으나 대체로는 원래의 구성대로이다. 숲과먼 산들을 배경으로 서있는, 원뿔형지붕이덮인불규칙한윤곽의높은탑들은잊지못할인상을남긴다. 밤이면 왕은 북쪽 다리로 올라가서 샹들리에와촛불에비치는동화속의성같은자신의 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데 그럴 만도 하다.

성의외관에는다양한요소들이배열되어 인상적이지만 육중한 석벽은 거의 아무런 장식도 없어 오히려 두드러진다. 그래서관람객은 성 안에 들어가풍부하고 복잡한 실내장식을보고깜짝놀라게된다. 벽이나바닥에그림이나 장식이 없는 부분이거의 없을 정도이다. 루트비히 2세의 침실은 특히

'상상은현실을창조하는원형'이라고한월트디즈니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성 안에는 황도 별자리들을장식적 모티프로한천장이꾸며져있다.

호화롭다. 고딕양식의그방에는참나무판화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설을 주제로 한 슈피스의 그림들이 있다. 거실은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의 전설을 주제로 한 하우실트의태피스트리로꾸며져있다.

성안에는아주큰방이두개있는데, 각각 알현실과 가수의 방이다. 알현실에는정교한비잔티움식아케이드가있지만안타깝게도 방의중심에 있어야 할옥좌는 제작되지 않았다. 가수의방은 바르트부르크 성의 방을 본떠 만들었는데, 황도별자리들을 장식적 모티프로 한 패널들로 천장을 꾸몄다. 이두방에서루트비히2세는자신을로엔그린 같은 전설의 인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는 원형 이라고 한 월트 디즈니의 말이 생각나는 장면이다. 실제로 북쪽에서 바라본 성의 모습은 디즈니랜드의상징과닮았다.

불행하게도 루트비히 2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1880년에추산한결과, 성이완성되는1893년까지는 경비가 매년 90만 마르크가 필요했다. 그 무렵 루트비히2세는다른 성을 두 개짓기 시작했으므로 총경비는 그의 예산을 넘었다. 게다가 그는모든비용을자신의 왕실 재산에서 충당하고 공금에 의존하지 않았으므로 재정난은 더욱 심했다. 이 때문에 신민들은 그를 매력적인 괴짜로 여겼으나, 정부는왕의망상에젖은행동에점차적대감을 나타냈다. 심지어 정부는 정신감정위원회까지 구성해 왕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고, 예순살이된그의삼촌을섭정으로임명하였다.

뮌헨 궁정 극장의 디자이너 크리스티안 이양이 스케치로묘사한노이슈반슈타인성의이상적모습(1869).

좌절한 루트비히 2세는 마침내 왕위에서 물러나기로하고노이슈반슈타인성도빼앗겼다. 사흘뒤인1886년6월 13일그는슈타른베르크호수에빠져죽었다. 그의소망과는 반대로 성은 그가 죽은 지 3주일 뒤에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었고, 역설적으로루트비히 2세에게독일최고의관광명소를만든역사적인왕이라는불후의명성을안겨주었다.

겨울에찍은노이슈반슈타인성. 자연과일체가되어수려한 전경을 자랑하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멀찌감치 보이기시작할때부터방문객의마음을사로잡는다.

'동화속의성'유지위해아낌없는지원

오늘날 노이슈반슈타인성은 유럽의 성과 궁전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동화 속의 성'을 방문하며, 특히 여름에는한명을위해지어졌던성안의수많은방들을매일6,000명이통과한다.

성이 위치한전원 풍경은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기초에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고, 성벽은 정기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바이에른 지방의 혹독한 날씨도 석회 외벽을 침식하고 있어, 향후복구작업이필연적이다. 1990년 이래 바바리아 정부는 1,100만 유로를 성의 복구와관광객시설에쏟아부었다.

구본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책임연구원
bkoo@cerik.re.kr